



문화수도 광주를 말한다 '창조도시' 저자 찰스 랜들리·이병훈 亞문화중심추진단장 대담

저서 '창조도시'로 유명한 찰스 랜들리(Charles Landry·63)가 14일 오후 광주를 찾았다. 그는 리처드 폴로리다와 함께 '창조도시이론'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석학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광주를 주제로 이날 옛 전남도청 앞 아시아문화마루, 즉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에서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단장과 대담을 가졌다.

찰스 랜들리는 이 자리에서 창조도시의 의미, 인재와 그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도시시스템, 다양한 계층 간 소통의 중요성, 시설보다는 프로그램 중심해야 하는 이유, 광주시민의 자세 등을 이야기했다. 그는 "어느 도시도 완벽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도시는 교육이나 여가 등 삶의 편의성, 개개인의 꿈 실현 가능성, 그 도시만이 가진 개성과 특징 등 3가지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도시만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몰려들 때 문화도시 광주는 최고의 창조도시”

다음은 일문일답.

-이병훈 단장(이하 이)=지난 2005년에 이어 광주를 두 번째 찾았는데 광주의 인상은 어떠한가.

▲찰스 랜들리(이하 랜들리)=6년 전보다 도시 규모가 더 커지고 복잡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 찾아서인지 광주에 대해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야심찬 프로젝트(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대담하다고 생각했다. 정체성을 갖고 더 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면 전세계에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광주는 전통문화와 예술의 도시이면서 동시에 한국 민주화를 이끈 민주도시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빛의 도시 등 다양한 것들을 표방하고 있다.

▲랜들리=대부분의 도시가 복잡하고 나름의 배경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세계는 단순함을 바라고 있다. 프로젝트 등을 통해 창의성, 상상력으로 전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도시가 다른 도시와 외지인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좋은 말이다. 광주 내부에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외부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다. 그런데 문화도시와 창조도시,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랜들리=창조란 문화도시의 자원이 되

는 것이다. 문화유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해진 가치와 특징이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 창의적인 요소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창의성은 하나의 엔진이며, 문화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결과물이다. 최고의 창조도시란 이러한 문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에 반영되도록 한다. 창의성은 어떠한 상황에서 계획하고, 활동하고, 이해하는, 모든 과정에 적용될 수 있으며, 새로운 정치·아이디어·개념·상품·기술·과정 등의 규칙이 되기 도 한다. 모든 창조적인 요소들이 더해지면 창조성은 더 커지며, 특히 예술적인 측면은 더욱 그렇다.

-이=소수의 창의성은 물론 다수의 창의성도 중요하다는 말인데, 최근 인프라보다 사람에게 투자해야하며, 인재가 도시로 유입돼야한다는 '도시의 승리'의 저자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와 일맥상통한 주장이다.

▲랜들리=산업화된 도시에서는 도시의 산업에만 접근하고 기술적인 면에 치중한다. 그러나 도시는 실제로 하드웨어(시설)와 소프트웨어(운영 프로그램)이 결합한 것이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하드웨어를 중시하는 사람들과 문화나 의미, 장소 등 소프트웨어에 치중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충돌도 당연한 것이다. 예술은 도시를 풍부하게 하지만 그것이 개발과 연계될 때는 마찰이 빚어지곤 한다. 따라서 광주의 프로젝트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유럽의 경우 오랜 역사 속에 하드웨어가 잘 갖춰져 있어 소프트웨어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 등 우리나라 도시는 기



지난 14일 오후 옛 전남도청 앞 아시아문화마루에서 광주를 찾은 '창조도시' 저자 찰스 랜들리와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단장이 '창의적 문화도시 조성'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본적인 하드웨어가 부족해 이를 동시에 진행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랜들리=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도시로 몰려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를 감안한 도시계획은 과거 지나치게 물리적인 환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건축가, 건설업체 등이 건물과 시설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사회복지 등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이 도시계획에 광범위하게 결합하고 협업을 통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도시에서의 창조성은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랜들리=가능한 많은 사람의 역량이 모여서 창의적으로 상상력을 동원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도시에서의 창조성이다.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창조성은 일종의 능력이자 역량이며 방향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도시 문제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순하고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조합을 통해 융통성 있고 개방적·유기적인 사고로 상황 전개에 따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도시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예로부터 잘 작동했던 해결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와 예술은 이 같

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 광주의 해결책은 광주의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했으면 한다.

-이=20년간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에 너무도 적절한 조언이다.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것이 시민과의 소통이었다.

▲랜들리=광주시민들로 하여금 흥미로운 이야기에 참여하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어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영국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 Museum)은 개관 4년 전부터 시민들을 참여시켜 이 건물 개관할 때쯤 이 건물은 이미 시민들의 일부가 됐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모든 과정이 광주시민들에게 열려 있다면 공동 제작, 공동 참여, 공동 창의를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이=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문화복합공간이다.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이다. 전당의 건축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랜들리=건물을 짓는 것보다 좀 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지하에 자리한 것은 독특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크고 웅장하게만 지으려한다면 10년도 안 돼 지겨워질 것이다.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에 인재들이 몰려들어야 한다. 인센티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유입하도록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에디터리 프린지 같은 프로젝트도 좋은 사례다.

-이=그 말을 들으니 위안이 된다. 전당은 인간 존중, 자연경관 등을 감안해 설계됐다.

전당의 주인은 전세계 예술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개인과 기업이며, 정부는 지원만 할 것이다.

▲랜들리=문제는 도시가 인센티브와 규제를 잘 만들어 놓았는가, 도시가 나름의 특징과 정체성 가지고 있는가, 도시가 개방적인가, 도시가 시의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가, 기업이 정신을 가지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공공성을 대변하는가, 앞선 생각하고 있는가 등을 생각해 봐야할 것 같다.

-이=광주는 굉장한 역동성, 즉 신바람 있는 곳이다. 다만 시민들의 개방성, 즉 오픈마인드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

▲랜들리=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기여를 하는 곳이 도시다. 한국의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은행계좌 개설하는 것조차 너무 어렵다. 과거처럼 직장을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70% 이상이 도시 선택한 뒤 그곳에서 직장을 찾는다. 그만큼 도시의 다양성과 창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육, 여가 등 삶의 편의성, 개개인의 꿈 실현 가능성, 그 도시만이 가진 개성과 특징 등 3가지가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광주는 큰 꿈을 꾸고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랜들리의 말처럼 광주시민의 창의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앞으로 세계 곳곳에 광주를 홍보해 주길 바란다.

▲랜들리=광주 프로젝트가 흥미로운 점은 큰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프로젝트가 세계적으로 이야기되고 그 속에서 광주성도 유지됐으면 한다. /윤현석기자 chadok@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이태리가구 大세일

내일 18일 까지

광주 동구 장동 58-15 홍스페이스 가구 빌딩(동구청-전여고사이) SINCE 1992 100% 이태리 가구 직수입 도 소매

홍스페이스 SPACE 1899-0240